

癸未字本 《宋朝表牋總類》 解題

千 惠 鳳

서울大學校 奎章閣 소장의 《宋朝表牋總類》 권 제 7 은 책의 앞뒤를 잃은 殘存의 零本이므로 序文 또는 跋文을 볼 수 없어 編輯者는 알 수 없다. 다른 書目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다만 元代의 문사에 의해 편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내용은 宋朝에서 황제에 아뢰던 表文 牋文을 類別로 구분, 奏議者의 글을 집록하여 參用에 편리하도록 엮은 奏議總類라 하겠다. 권 제 7의 零本에는 明堂 祠祭에 관한 名臣들의 表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태종 3년(1403)에 주조한 癸未字의 큰자와 작은자로 찍은 全帙 중, 권 제 7 만을 분책하여 1책으로 장정한 것이 전래된 것이다. 책장은 총 12장인데, 그것도 끝장 뒤 半葉이 인쇄되지 않은 白紙인 까닭에 잘라내어 실제로는 11장 반엽이 남아 있는 셈이다. 책장은 제 10, 11, 12장의 匡郭 上邊 왼쪽 구석 일대의 書眉와 本文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

版式은 左右雙邊에 半郭의 크기가 邊 안쪽에서 안쪽까지를 켜 세로가 23cm 가로가 14cm 이고, 有界에 每半葉의 行字數가 8행에 큰자는 한 行의 字數 未詳이고 註의 작은자는 21자에 雙行으로 植字되어 있다. 版心에는 白口에 上下下向黑魚尾가 있고 魚尾 사이에는 ‘宋表’의 版心題에 이어 卷次 그리고 下魚尾 아래에 張次가 매겨져 있다. 책 크기는 세로 29cm 가로 19cm이고, 分冊하여 再裝했기 때문에 原表紙가 없고 책지의 앞뒤에 餘紙 한장을 각각 삽입한 다음, 深黃色布表紙를 사용하여 紅絲로 五針綴裝法에 의하여 改裝한 線裝本이다.

책 머리의 첫장 書眉 중앙에 ‘서울大學校圖書’의 藏書印 下半部가 朱印되어 있고, 그 옆에 ‘가람貴—952.02—S058—V.7’의 請求記號가 연필로 기록되어 있다. 가람 李秉岐교수의 舊藏이 서울大學校 奎章閣으로 들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癸未字本 《宋朝表牋總類》는 이미 국보 제150호로 지정되어, 국보 제148호로 지정된 癸未字本 《十七史纂古今通要》 권 제 16 零本 1책과 함께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¹⁾

同書의 癸未字本은 이것 이외에도 李仁榮의 《清芬室書目》에 5권 1책이 소개되고 있으나⁽²⁾ 그 實物은 지금까지 行方이 묘연하다. 뜻밖에도 근래에 또 권 제 6~11의 6권 1책이 발견되

* 필자: 成均館大學校 名譽教授

(1) 千惠鳳 編著, 《國寶 12 書藝·典籍》(서울: 藝耕產業社, 1988) p. 288.

(2) 李仁榮著, 《清芬室書目》(서울: 寶蓮閣, 1968) p. 393.

었다는 희소식이다. 복사물을 통해 보아도 틀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수록 내용은 권 제 6에 宗廟·郊祀, 권 제 7에 明堂·祠祭(서울大學校 奎章閣藏과 複本), 권 제 8에 上慰·大行, 권 제 9에 正旦·冬至·春令·夏令·秋令·冬令, 권 제 10에 宰相, 권 제 11에 叅政·樞密副使 등 各類에 대한 奏議者들의 表牋文이다. 하루 빨리 一般에게 公開되어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되길 기대한다.

二

《宋朝表牋總類》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조선조에서 최초로 주조한 동활자인 癸未字로 적어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癸未字에 관하여는 활자들 주상하고 나서 그 鑄字事實을 글로 쓴 權近의 鑄字跋에 소상하게 전해지고 있다.⁽³⁾ 조선왕조의 기틀이 제 3대 왕인 태종 때에 와서 잡히자, 임금은 동왕 3년(1403) 봄 2월에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시기를 ‘대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함에는 반드시 널리 典籍을 보아야만 모든 理致를 궁구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고 自己 집안을 가지런하게 다스리고 또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며 그런 연후에 天下를 태평하게 하는 보람을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東方이 海外에 위치하고 있어 中國의 書籍이 드물게 이르고 木板에 새겨 찍은 책은 쉽게 글자에 마멸과 이지러짐이 생기며 또 세상의 책을 다 새겨 찍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銅을 모든 본에 부어 活字를 만들어 책을 입수하는 대로 반드시 찍어 널리 퍼내고자 하는데, 이는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經費를 百姓에게서 거둬내는 것이 부당하므로 내가 宗親 勳臣 등의 臣僚들 중에 뜻 있는 이들과 더불어 이를 함께 한다면 거의 成就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사사로 쓰는 재물인 內帑을 다 내시면서 判司平府事 李穰, 知申事 朴錫命, 右代言 李膺 등에게 명하여 監督케 하고 軍資監 姜天暉, 長興庫使 金莊侃, 代言司注書 柳璣, 壽寧府丞 金爲民, 校書著作郎 朴允英 등에게 명하여 그 일을 관장케 하였다.

그리고 經筵에 소장한 옛 註 달림의 《詩經》·《書經》 및 《春秋左氏傳》을 내어 글자본으로 삼게 해서 그달 18일부터 주조에 착수, 數個月 걸려 數10萬字라는 많은 수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이렇게 주조한 癸未字의 글자체를 종래 方筆의 해정한 歐陽詢體라고 한결같이 담습해 오기에 필자는 송나라의 北宋本, 南宋의 浙本·蜀本·閩本の 여러 글자체를 對查比較하여 그에 대한 견해를 <癸未字本《十七史纂古今通要》解題>(《奎章閣》9집)에서 이미 펴리한 바 있었다.⁽⁴⁾ 그것은 南宋의 蜀本《資治通鑑》에서 볼 수 있는 글자체와 비슷하며, 方筆의 歐體

(3) 權近 撰, 《陽村集》, 卷 22 跋語類 鑄字跋

(4) 千惠鳳, <癸未字本《十七史纂古今通要》解題>, 《奎章閣》9(1985), pp. 129~135.

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顏真卿 또는 柳公權의 圓筆의 글자체에서 볼 수 있는 韻筆이 곁들여 지고 橫畫에는 날카로운 瘦金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字體라고 하였다.⁽⁵⁾ 이것은 물론 南宋의 대표적인 私家刻本과 對查比較한 것이고, 地方官刊本까지 아울러 대상하면 그 글자체의 특징은 다른 南宋 地方官刊本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日本의 宮內廳書陵部와 靜嘉堂文庫에 각각 소장된 南宋本 《春秋經傳集解》를 보면 江南西路의 興國軍學에서 嘉定 9년(1216)에 간행한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 癸未字本의 글자체를 방불케 한다.

活字의 주조는 위의 鑄字跋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태종 3년(1403) 2월 18일에 착수하여 數個月 걸려 數10萬字를 주성하였다. 甲寅字의 경우 20萬字를 주성했음을 고려하면 여기 이 數10萬字는 2·30萬字로 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活字 總數는 甲寅字보다 오히려 많았던 듯 하다. 이것은 活字 크기의 구분없이 총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癸未字 印本을 조사하여 보면 큰자, 작은자, 그리고 약간의 특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三

근래 癸未字의 고증에 대하여 새로운 問題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끌게 한다. 그 요점은 癸未字의 글자체와 흡사한 南宋本 註 달림의 《春秋經傳集解》 권 제10(日本 靜嘉堂文庫所藏)과 글자를 對查해 본 바, 활자 크기에서 큰자는 같으나 작은자가 다르므로 종래의 견해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비추주고 있다.⁽⁶⁾ 그 수정 내용으로는 태종 3년(1403)의 癸未字 주조는 큰 활자뿐이고, 작은 활자는 高麗의 書籍院에 전해 온 활자를 그대로 계승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⁷⁾

그러나 이 연구에 있어서 고증의 정곡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유의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우선 언급해 둔다.

첫째, 글자본의 바탕이 된 책과의 對查 考證은 1종으로 국한되서는 안되고 3종을 전부 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1차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글자본의 바탕 책은 權近의 癸未字 鑄字跋에 밝혔듯이 옛 註 달림의 《詩經》·《書經》 및 《春秋左氏傳》이다. 그러므로 《春秋左氏傳》 이외의 다른 2종의 《詩經》·《書經》도 對查하여야만 올바른 고증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새로 提起한 問題는 그 고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글자본의 바탕이 된 책 전부 對查하는 일이 必須的 先行要件이라 하겠다.

(5) ① 屈萬里·昌彼得 合著, 《圖書板本字要略》(台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5, p. 75.

② 千惠鳳, 〈癸未字와 그 印本〉, 《韓國書誌學研究》(서울: 三省出版社, 1991) pp. 792~794.

(6)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第 7 號 (1992), pp. 3~33.

(7) 조선일보 1993. 1. 7(목요일) 21, 30쪽 기사.

둘째, 글자본의 바탕이 된 南宋本의 옛 註 달림의 《詩經》·《書經》《春秋左氏傳》은 우리나라의 鑄字本과는 달리 木板本이므로 글자체는 같다 하더라도 글자의 크기에 있어서는 서로 꼭 같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癸未小字의 크기가 《春秋經傳集解》보다 작다면 다른 2종의 《詩經》·《書經》 중에는 반드시 같은 크기의 작은자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癸未字本에서 쓰인 작은자가 高麗 書籍院의 활자를 그대로 이어 받아 쓴 것임을 立證하려면 建國 초기의 政府 活字印刷 사정에 대해서 또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太祖는 원년(1392) 7월에 개국하자 제일 먼저 功臣都監을 설치하고 8월 2일부터 關國功臣에게 錄券과 敎書 그리고 그해 10월부터는 原從功臣들에게 錄券을 내려 論功行賞하였는데, 이들 錄券과 敎書가 모두 筆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겨우 3년 뒤인 東王 4년(1395)에 이르러 비로소 그 一部の 刊印에 조잡한 木活字 인쇄가 병행되었다. 그리고 書籍院도 東王 4년(1395)에 처음으로 《大明律直解》100部를 木活字로 찍어 반포하였는데, 그것은 白州知事 徐贊이 만들어 바친 것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 때 만일 癸未小字와 같은 많은 수량의 銅活字가 있었다면 정녕 이들 文書와 書籍의 印出에 긴요하게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古活字本 특히 初期의 活字本이 더욱 그러했지만, 活字의 구조술과 조판술이 미숙하여 印出部數는 적으나 印出頻도가 잦아 그 版種이 참으로 多種多樣했음도 아울러 염두에 두었어야 했을 것이다. 여기 이 경우 같은 活字로 찍은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에 2종이 전해지고 있어 서로 대조하여 보니, 그중 하나는 文章에 元나라 황제의 이름 글자가 나타나 경피하기 위해 改行上字한 舊元板本에 의하여 그대로 植字 印出한 版種이고, 다른 하나는 그 改行上字의 形式을 고쳐 뒤에 重印한 異版인데, 前者의 印本을 文體에 사로잡혀 그것이 마치 고려 때 印出된 初印本인양 착각한데서 問題의 提起가 또한 유도되었던 듯하다. 이것은 日本人 學者가 癸未字로 찍고 그 印出記錄까지 표시한 《十一家註孫子》를 뒤에 丙子字로 그대로 다시 찍은 異版에서 舊印出記錄에 사로잡혀 마치 그 重印本이 올바른 癸未字本인양 발표했다⁸⁾가 크게 실수한 사례와 비슷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活字印刷가 盛行하여 같은 活字로 찍은 同書異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文體와 記錄 등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版種의 識別에 유의하여야 함을 강조해 둔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볼 때, 글자본의 바탕이 된 3종의 목판본 중 1종만을 대사하고 活字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 하여 그중 작은자를 高麗活字로 격상시키려는 視角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大塚 鏡, 〈癸未活字について〉, 《朝鮮學報》第21・22輯(奈良: 1961), pp. 393~402.

四

癸未字로 찍은 책이 근래 몇 種 더 발굴되었다. 이들 活字本을 총망라하여 活字 크기에 따라 큰자 專用印本, 큰자와 작은자 並用印本, 작은자 專用印本으로 구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큰자 專用印本

-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卷4·5 2册 국보 149호 (澗松美術館所藏)
-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卷6 1册 국보 149호 (誠庵古書博物館所藏)
-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序文 2張(本文 庚子字 印出) (汎友社 所藏)

2. 큰자와 작은자 並用印本

- 《十七史纂古今通要》卷6 1册 국보 148호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
- 《十七史纂古今通要》卷17 1册 국보 148호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 《宋朝表牋總類》卷6~11 1册 (個人 所藏)
- 《宋朝表牋總類》卷7 1册 국보 150호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
- 《纂圖互註周禮》卷1·2 1册(缺落本) (日本國會圖書館 所藏)

3. 작은자 專用印本

- 《陶隱先生詩集》卷1 1册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 《陶隱先生詩集》卷3 1册 (故 金完燮 所藏)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卷5·6 1册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卷7·8 1册 (個人 所藏)
- 《地理全書洞林照膽經》卷上下 1册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큰자 專用印本은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1종 뿐이고,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는 본시 庚子字로 찍은 印本인데 序文만 癸未字 큰자로 찍은 것이 특징이다. 癸未字는 庚子字를 주조할 때 녹여 썼다는 종래의 說에 새로운 檢討를 가할 수 있게 한다. 庚子字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活字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큰자가 필요할 경우 쓰기 위하여 癸未字 큰자중 한 벌 정도를 남겨두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큰자와 작은자의 並用印本을 보면 《十七史纂古今通要》에서도 註釋의 작은자가 頻出되나, 《纂圖互註周禮》의 경우는 작은자가 더욱 많아지고, 《宋朝表牋總類》에서는 거의 작은자가 차지하고 있다. 癸未字 並用印本의 繙刻 全帙이 전래되고 있는 端宗 2년(1454) 錦山 간행의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권 1~70 完帙本을 보더라도 작은자가 얼마나 많이 주조되었는가를 능히 추산할 수 있게 한다. 癸未字의 글자체와 흡사하여 그 字本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南宋本《春秋經傳集解》권 1~30 全帙에서 조사한 것을 참고로 원용해 보더라도 큰자가 19만 8348자인데 대하여 작은자는 14만 6788자에 이르고 있다. 癸未字가 본시 이렇듯 옛 註 달린, 말하자면 註釋이 자세한 《詩經》·《書經》·《春秋左氏傳》을 字本으

로 하였다는 점에서 작은자의 구조수량이 많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癸未字의 鑄成目的이 崇儒右文政策을 강력히 촉진시키기 위해 註釋이 자세한 經史書籍을 많이 찍어 널리 流通코 자함에 있었던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렇듯 癸未字에 작은자가 많았다는 것은 또한 작은자의 專用印本이 적지 않게 전래되고 있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작은자의 專用印本으로는 위에서 든 3종 이외에도 記錄에서 여러 종을 가려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癸未字는 큰자에 못지 않게 작은자가 많이 구조되었음을 새삼 확인케 한다.

위에서 든 작은자 專用印本중, 李崇仁(1349~1392)의 《陶隱先生詩集》은 唯一한 우리나라 文士의 著述인 점에서 돋보이는데, 그것은 태종 6년(1406) 임금의 명으로 印出되었다. 그 사실이 承命撰한 權近의 跋文에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⁹⁾ 그리고 《地理全書洞林照膽經》의 印本은 磨損이 심하여 손을 댈수 없는 상태다. 얼마나 많이 利用되었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太宗 17년(1417)에 識緯術數로 惑世誣民하는 무리가 많아 書雲觀에 소장한 讖書를 불살라 버린 일이 있었지만⁽¹⁰⁾, 地理全書 地理大全 地理新書와 같은 地理學書는 吉地安墳을 가려내는 데 중요한 책이었으므로 例外였다. 이들 地理學書중 洞林照膽經 등 9종은 陰陽科 初·覆試에서 講書로 채택되어,⁽¹¹⁾ 太宗朝에서는 癸未字로 印出되고 世宗朝에서는 여러 地理學書와 함께 대대적인 刊印이 이루어졌다.⁽¹²⁾

五

癸未字는 조선조에서 최초로 만든 銅活字이기 때문에 鑄造術과 組版術이 아직도 미숙 치졸하였다. 麗末의 寺鑄活字本인 《佛祖直指心體要節》과 비교해 보면 첫째, 活字의 구조술에서 바탕글자를 쓰고 새겨서 부어내는 과정과 방법이 대폭 개량되었지만, 活字의 크기와 모양이 아직도 고르지 않고 또 글자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그 획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어 인쇄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둘째, 조판술에서도 크게 개량되었으나, 네 모퉁이를 고착시킨 틀의 위아래 변에 界線을 고착시킨 印版을 만들어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활자를 꼭 들어맞도록 무리하게 密着 배열하였기 때문에 옆줄이 맞지 않고 큰자인 경우는 뒷글자와 아랫글자의 획이 엇물린 것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큰래 발권된 同書 권 제 6~11의 6권을 조사해 보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이와 같이 고려 말기의 興德寺活字보다 개량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기술이 미숙한 초기의

(9) ① 《太祖實錄》卷 1, 太祖 元年 壬申 8月 壬申條

② 《陽村集》卷 20, 陶隱先生崇仁文集序

(10) 《太宗實錄》卷 34, 太宗 17年 丁酉 12月 丙申條

(11) 《經國大典》卷 3, 禮典 諸科 陰陽科 初試·覆試 講書條

(12) 《世宗實錄》卷 51, 世宗 13年 辛亥 正月 丁丑條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宋末字의 組版法은 판틀 바닥에 먼저 밀랍을 깔고 활자를 배열한 다음, 熱을 가하여 밀랍을 녹이고 판판한 鐵版으로 위에서 고르게 눌러 활자면을 평평하게 하고 熱을 제거하여 개개의 활자가 굳어지면 인쇄하였다. 그러나 밀랍의 응고력이 약하여 인쇄도중 자주 흔들리고 기울어져 수시 밀랍을 녹여 부어야 했으므로 그 消費量이 많으면서도 하루의 印出量은 겨우 數紙에 지나지 않았다. 活字는 밀랍 속에 잘 꽂히도록 끝을 송곳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었지만 活字의 크기와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印版도 거칠게 만들어져 印刷 도중 동요가 잦았던 듯하다. 이러한 기술조건 아래서도 鑄字所가 책을 간단없이 적어 판매하여 널리 보급하였음은 文化史的인 면에서 意義가 크다 하겠다.